

경인양행, 감광재로 사업다각화 추진

경인양행은 다이토키스코에 32억원을 출자해 지분 40%를 취득했다고 2월3일 공시했다.

다이토키스토는 액정패널용 감광성 재료 제조기업으로 경인양행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감광재 관련사업 진출을 위해 출자했다고 설명했다.

<화학저널 2005/02/04>